

실물경제 불확실,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③

지금은 위험은 분산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신(Balance) 통신펜드 랩**

300만원부터 1000~4000만원까지 투자가능  
 100% 국내주식 투자  
 100% 국내주식 투자  
 100% 국내주식 투자

오늘의 날씨 | 맑음 | -8℃/1℃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음력 11월 8일)

www.christiandaily.co.kr

제 1194호

"자기가, 말은 안했지만  
와이셔츠 다림질 참 힘들어!"

모든 아내의 속마음에 가장 가까이서, 와이셔츠 세탁서비스

구독신청 02-722-8165

# 2019년 3.1운동 범국민대회 “시민사회와 연합하겠다”

##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 준비 회의 종료 대화관에서

내년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주도하는 범국민대회 준비 회의가 13일 오전 7시 종로 대화관에서 열렸다. 종로 대화관은 3.1운동을 앞두고 민족대표 33인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곳이다. 제 28대 기갑 감독 회장 겸 3.1운동 100주년 위원회장 전명구 감독 사회로 진행된 이번 3.1운동 기념대회 준비 회의는 1부 예배 및 2부 회무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김성북 한교총 연합회장이 시편 133:1-3을 놓고 설교를 전했다.

그는 “일본 국가는 천황 중심”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정신은 애국가에서 드러났다. ‘하나님이 보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연합은 외형적·물리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교세를 부풀리는 연합은 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연합은 머리에서부터 이뤄져야 하는데 곧 성령, 한 믿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에베소서는 성령의 하나 신의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며, 연합 활동을 하고 3.1 기념사업을 하는 모든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한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그는 엠 4:3을 인용했다. 다음과 같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엠 4:3)  
 이어 그는 “하나님 나라 연합 운동은 성령의 기쁨을 받아서 해야 한다”며 “또 인정과 배려가 있는 연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작은 지체가 요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소 교단들이 들러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연합에 동참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참석하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동참할 때 작은 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큰 자들이 위세를 부리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교단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그는 “베드로 후서 5:3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신다”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실무에 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후 5:3)  
 제2부는 회무 순서가 이어졌다. 변창배 예장 통합 사무총장은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를 간략히 소개했다. 그는 “2019년 3월 1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약 30만명 참가 인원을 예상하여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를 열 것”이라며 “7대 종단이 참여하는데, 기독교 측은 한교총과 NCCK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각 시민단체 노동운동계, 여성계 등이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만일 범국민대회가 어려울 경우, 교회가 독자적으로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연합성회를 따로 개최할 것”이라며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함께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교회 색깔을 드러내되, 연합 정신에 최대한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유로, 그는 “교회가 따로 하겠다면 외부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안하는 마음으로 100년 한국교회 연합성회를 차선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내년도 3월 1일 동일한 날짜에 개최되, 장소를 달리해 서울시 광장에서 참가인원은 약 2만 명을 예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한교총 및 연합단체와 기관 등이 주최하며, 찬양제 및 3.1운동 기념 연설과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앞선 두 대회와 달리, 3.1 운동 기념 예배를 2019년 3월 1일 유관순 기념관에서 교회 행사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변 사무총장은 밝혔다. 평통연대가 참여하며, NCCK와 한교총이 연대해 주최한다. 아울러 3.1운동 100주년 기념 창작 오페라인 ‘3.1운동’을 KBS홀에서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공연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고려오페라단이 주최하고, 문성보 목사가 각본을 짜고 박재준 작곡가가 오페라 가곡을 담당한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후원한다.

의미심장한 행사로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2019년 2월 8일 날에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



### “3.1정신을 다시

내년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주도하는 범국민대회 준비 회의가 13일 종로 대화관에서 열렸다. 대화관은 3.1운동을 앞두고 민족대표 33인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의미가 있는 곳이다. 회의를 마치고 대화관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교단장들과 총무, 관계자들의 모습. © 노형구 기자

동 기념 예배를 2019년 3월 1일 유관순 기념관에서 교회 행사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변 사무총장은 밝혔다. 평통연대가 참여하며, NCCK와 한교총이 연대해 주최한다. 아울러 3.1운동 100주년 기념 창작 오페라인 ‘3.1운동’을 KBS홀에서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공연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고려오페라단이 주최하고, 문성보 목사가 각본을 짜고 박재준 작곡가가 오페라 가곡을 담당한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후원한다.

의미심장한 행사로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2019년 2월 8일 날에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

다. 변 사무총장은 “2019년 2월 8일 동경 YMCA에서 개최할 계획이지만 현재 자리 얻는 게 힘들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교총 연합회장 김상복 목사는 “기미독립선언서는 나라의 주권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선언된 것”이라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소중한 낭독 선언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단순히 반일(反日) 감정이 아니라 ‘왜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나’를 생각하며, 나라의 소중함·화합 정신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어떻게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절실함이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뒤이어 3.1운동 100주년 & 상해임시정부 100년 임정청사 방문 기념대회가 2019년 4월 10-13일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중국 상해 근방이며, 한교총이 주최하고 기독교텔레비전(CTS)가 주관한다. 신평식 한교총 사무총장은 “3.1운동 상해임시정부 100주년 임정청사 방문 기념대회는 각 교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또한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정책이 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신평식 한교총 사무총장은 “2019년 3월 1일 범국민대회는 기독교 교유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회단체, 종단들과 함께하는 차원으로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라며 “다만 범국민대회 때 교회가 참여할 때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안 들도록, 또 교회가 소홀하지 않도록 조절해서 보고 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2019년 2월 24일에 열릴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국교회 공동예배에서 공동설교문 및 대표기도문을 작성할 때,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이나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차기 회의는 내년 1월 7일 오전 11시 한교총 신년하례회가 끝난 후 열릴 것”을 제안했다. 회무에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 제정으로 차기 회의는 2019년 1월 7일에 확정됐다. **노형구 기자**

## “화합·연합·통합을 통해 동질·동행·동거를 추구”

### 한기연 제8대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취임예배

한국기독교연합 제8대 대표회장에게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가 취임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지난 12월 13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교계 정관계, 언론인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일치와 섬김 사역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1부 예배는 김효종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박만수 목사(공동회장의 기도)와 서기 김병근 목사의 성경봉독, 군포제일교회 찬양대의 찬양, 원팔연 목사(전주 바울교회 원로)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안태준 목사(공동회장),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홍종자 목사(공동회장), “한국기독교연합의 회원교단과 단체를 위해” 박만수 목사(공동회장), “대표회장 및 임원진을 위해” 유안근 목사(공동회장) 특별기도한 후 김윤기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원팔연 목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나’(요21:15-17) 제하의 설교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구할 지도자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 성도들을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사람,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가 이토록 혼탁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 행세를 하기 때문”이라며 “대표회장에게 취임하는 권태진 목사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지도자이기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부 축하예식은 박만수 목사(공동회장)의 사회로 개식사에 이어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가 취임하는 권태진 목사를 소개하고, 이어 양병희 목사(4대 대표회장)가 권면을, 이동석 목사(직전 대표회장)가 격려사를, 송태섭 목사(한장총 대표회장)와 원종문 목사(한민족통일연합회 이사장)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서면 축사에서 “평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며, 한국기독교연합 제8대 대표회장에게 취임하는 권태진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말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불황과 국내외 어려운 안보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한국기독교연합에 소속된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따뜻한 사회로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축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권태진 목사님은 일찍이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 오셨고,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 어둡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정의의 위해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권태진 회장님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연합의 활동이 기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도 “권태진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사회복지사업가로서 일찍이 지역과 사회의 복지에 앞장서 오셨고 이제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으로

서 우리나라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많은 역할을 감당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기연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웃에게는 한 형제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정부와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축사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먼저 자리를 뜨게 돼 미안하다며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는 권태진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해 주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며 “한기연이 권태진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축사순서에 이어 폼페라 가수 김민석 전도사의 축가가 있는 후 각계의 취임축하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부족한 사람을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에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한국교회 화합과 연합, 통합 3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기독교

교연합 대표회장의 직책을 맡게 됐다”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지 말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합, 연합, 통합은 동질, 동행, 동거로 가야한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한기총, 한교총, 한기연 다 하나다. 동질성 회복 운동을 벌여겠다”면서, “같이 일하고 그리고 동거해야 한다. 때 밀려서 동행도 안하고 동거부터 하는 것은 다름이 일어난다”고 역설했다.

다불어 “꽃다발 앞에 나간 다윗처럼 초라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회원 교단장과 총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기도를 바랐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총무협의회 회장 김명찬 목사와 4대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직전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설교자 원팔연 목사,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 등을 일일이 호명해 자신이 받은 꽃다발을 안겨주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며 협조를 요청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제8회기 임원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에게 임명

장을 수여했으며, 기획홍보실장 김 훈 장로가 내빈을 소개하고 광고를 전한 후 박재준 목사의 마침기도로 마무리했다.

이날 축하예식에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민감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원경환 신임청장자 화환과 난화분을 보내왔으며, 교계에서는 기독교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비롯해 다수가 화환과 화분, 쌀화환을 보내왔다.

한편 제8대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96회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박사, 루이지애나 Baptist대 명예철학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 명예신학박사이다.

한장총 제30회 대표회장, 성심클럽 제18대 회장, 군포시시독교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사단법인 성민원 이사장, 경기북지니스 발행인, 한국교회 종교인관계대책 TF팀 위원장, 한기연 상임회장과 한국교회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군포제일교회를 개척해 만40년간 시무해 왔다. **박용국 기자**

##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의 행렬 멈추라”

최근 태안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의 죽음과 관련,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대표 남재영 목사, 이하 비정규직대책연대)가 “그의 죽음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이윤실현을 위한 위협의 외주화에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자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대책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국서부발전은 뻔뻔하게 개인의 실수 운운할 것이 아니라 고인도의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정부와 기업은 비

## 비정규직대책연대, 故 김용균 씨의 죽음과 관련 성명 발표

정규직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라 ▶국회는 위협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원정 기업에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법

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정규직대책연대는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정책 대안 모색, 노동시장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

과제 제시와 실천운동의 확산, 양극화, 경제정의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시민사회 및 해외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NCCK를 비롯한 교단과 교계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2015년 11월 3일에 발족해 활동 중이다. **▶성명전문3면/박용국 기자**



#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유익과 축복 (시 119:71, 전 7:3, 마 5:4,11,12, 고후 12:8-10)

제가 오전 11시 예배 때는 “올바른 삶과 올바른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지금 오후 2시 예배 때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유익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안상진 목사님이 “고난과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유익과 축복”이라는 좀 긴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 보다는 “유익과 축복”이라는 말이 보다 겸손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목사

사람들은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지만 유익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유익한 것입니까?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몸과 마음과 얼굴과 손과 발과 옆구리에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흔적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과 가슴에도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흔적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우셨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누이들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통곡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이사가 53장은 메시아 예수님에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인 사도 바울에게도 성 프랜시스에게도 이기종 목사님에게도 최권능 목사님에게도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이성봉 목사님에게도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한경직 목사님에게도 장기려 박사님에게도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과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우리들의 몸과 삶에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지낸다면 예수님을 조금은

아주 조금은 닮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을 조금은 아주 조금은 닮을 수 있고 성 프랜시스와 이기종 목사님과 최권능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이성봉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과 장기려 박사님을 조금은 아주 조금은 닮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 장수와 부귀영화를 추구하는데 장기려 박사님은 부귀영화나 고층 건물이나 고층 예배당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기 보다는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약함과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몸과 삶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께로 조금은 아주 조금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의 선배님들에게로 조금은 아주 조금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5평의 작은 집에서 26년 동안 가난하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몸과 삶에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면서 가난과 고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런 다짐을 했다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한 평생 좁은 집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많은 것이 생기거든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랑하는데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중하고 아주 아름다운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유익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많이 당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술한 고난의 리스트는 아주 길고 다양합니다. 고후 11:23절 이하에서 이렇게 길게 기술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 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23-27). 고후 12장에 와서는 자기가 당한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의 이야기를 기술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제해 달라고 주님께 세 번 간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사도 바울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기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수건을 대지만 해도 불치의 병들이 물러가곤 했는데 자기의 병을 위해서 세 번 간구했는데도 주님께서서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고 기술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실망을 하고 당황을 하며 슬픔과 아픔과 좌절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고후 12:9). 여기 “약함”은 질병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의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드리지도 못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불치의 병들을 착각 고쳐야 하나님의 능력이 멋지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왜 주님께서 그러실까? 좀 못마땅한 생각과 불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사도 바울은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자고 해지고 교만해져서 사탄의 노리게 갇히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능력을 행하다가 대단한 성공을 쟁취하다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을 뻔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고후 12:7을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12:7). 참으로 신기한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 자기 몸에 지닌 “약함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예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9,10).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너무나 유익한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서 죄수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사절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성품이 따뜻한 고린전적인 사랑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고 그리고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사랑과 섬김의 일을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

러하나라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갈 6:14,17).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공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치고 자고 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성공할 때 사람들은 자만해져서 인간의 영에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귀신의 영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나게 된 불치의 병을 인해서 기뻐하며 자랑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자기의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슬픔과 아픔과 곤란”을 기뻐하며 자랑한다고 고백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자기가 “약함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할 때 주님께서 당하신 “약함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슬픔과 아픔과 곤란”을 기뻐하며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더욱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 프랜시스도 한경직 목사님도 이준표 목사님도 몸에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고백에 다시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한국교회가 싫어하는 모든 내용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9,10).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너무나 유익한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서 죄수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사절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성품이 따뜻한 고린전적인 사랑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고 그리고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사랑과 섬김의 일을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

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빌 4:10,18).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정성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돌보다가 그만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빌 2:30).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돌아보다가 죽을 병에 걸리는 슬프고 또 아프고도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처음에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슬프고도 아프고도 고통스러운 질병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교회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빌립보교회가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한다는 소식을 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때문에 병들었고 그 일로 인해 빌립보교회와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근심 위에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빌 2:26). “내 근심 위에 근심을”(빌 4:27). 결국 에바브로디도의 병 때문에 삼자가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교회가 근심하게 되었고,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근심”은 아름다운 “근심”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하는 근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근심은 아름다운 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성도가 불치의 병에 걸릴 때 성도들이 근심하고 목회자가 근심하고 그리고 성도 자신이 미안해하면서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것은 아름다운 근심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삼자가 서로를 향해서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치유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결국 에바브로디도

가 기쁨에 쌓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기쁨에 쌓이게 되었고 빌립보교회가 기쁨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빌 2:27-30).

얼마 후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빌립보교회로 돌아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열었을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도록 수고한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이고 그렇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이고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자신들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7 장에 “기쁨”이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당했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기쁨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만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싫어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만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정식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음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마 16:22).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지고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3-25).

베드로는 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거친 다음, 디베라 바다가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한 다음부터, 앞으로는 팔을 벌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

# GODIVA

## Belgium 1926

**NEW** 고디바 초콜릿 기프트 컬렉션  
큐브 트뤼프 & 골드 디스커버리

소중한 분들에게 특별함을 선물하세요

제품문의 080 827 7700 [www.godiva.kr](http://www.godiva.kr)







장재호 목사의  
목회칼럼



8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 었더라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고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히브리서 4:8-11)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8:3-4))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답니다.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 사는 유대인이나, 안식일 제도를 고집하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폐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옛세동안은 자기 일을 힘쓰고 이래же 날만 안식하겠다는 고집으로 은혜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0. 안식일(安息日)에 대한 소고(溯考)

안식일(영·SABBATH/히·바트/헬·삽바톤)의 뜻은 편안히 쉬는 날이며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말합니다(느 13:19) 그리고 그 뜻은 ‘멈추다’입니다.

1.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A. 안식일의 유래(由來)

창세기 2:1-3에“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선포하게 하실 때 출애굽기 20:8-11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쉰새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 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하셨으니 광야교회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네 째 계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B.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선 안된다  
출애굽기 34:21에 “너는 옛새 동안 일하고 제 칠일에는 쉼지니 밭 갈 때에나 거름 때에도 쉼지며”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옮기거나 짐승에게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17:21-22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 지어다”했습니다. 안식일에 먹을 음식까지 전날에 준비토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26-27을 보면 “육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 칠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니 제 칠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하심을 보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훈련시키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3를 보면 안식일에는 불도 피

을 수 없었습니다.

C.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하심  
출애굽기 31:14-15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 지리라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하셨습니다.

D.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 실 날로 지키라 하심

출애굽기 31:13에“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했습니다.

레위기 24:8을 보면“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 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했으며, 민수기 28:9-10에는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흙 없는 숫양 둘과 고운 가루 예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 에니라”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안식일에는 성막의 진설병이 차려졌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2. 안식일과 예수그리스도

A. 인자(예수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심

마태복음 12:1-8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작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고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이 사무엘상 21:1-6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수혈원들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사실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과 결부시켜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B. 안식일에 병도고치시며 구원 활동을 하심

마태복음 12:10-13에 회당 안에 한편손 마른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했을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멍이에 빠졌으면 불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열마나 더 귀하나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마른손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C.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

누가복음 14:1-6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영토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나 아니하나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13:10-17 에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는데 회당장이 분을 내어 옛새 동안에 와서 고침 받으랴며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하니 예수께서“외식하는 자들이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8년간 사단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나 하시니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D.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마가복음 2:27-28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하셨습니다.

3. 그리스도인은 매일이 주안에서 안식하는 주님의 날로 살게 된다.

마태복음 22:35-40에“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예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하셨으며, 로마서 8:1-4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구약을 통한 특별 계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례를 받았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고, 율법을 준행했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데 아직 까지도 율법에 얽매인 유대인이나 안식일을 고집하는 이단도 있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증거된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사관(敎贖史觀)을 올바로 깨닫

지 못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로마서 3:20-24에“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17에서와 같이“그러한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에서는“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했으니 진실된 회개로 죄인이었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세례로 물속에 장례를 치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곧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으니 죽은 사람이 어찌 자기의 날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서 로마서 14:7-8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살리심으로 살 아았으니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날로 살아 드러야 할 것입니다.

## 유월절, 무교절, 아빍월 등 유대인들의 명절과 의미

권혁승 교수

칼럼



II. 유월절과 관련된 관습

1. 서론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방법은 1년을 주기로 계속 이어지는 그들의 명절을 통해서였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다. 이 중에서 유

월절은 다른 어느 명절들보다도 중요하였는데, 그것은 유대력에서 1년 중 가장 먼저 지켜지는 명절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출애굽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나무의 뿌리와 열매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 점에서 유월절은 기독교 신앙 이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학적 면에서 유대교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사건들은 시가나 의미 면에서 신약시대의 유대인 명절 유월절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신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의 역사를 통

하여 주어졌을 뿐 아니라 유대인의 삶으로 표현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지켜왔던 유월절 명절을 탐구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 속의 한 옛 풍습을 고찰하는 인류문화화적인 관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배경과 더불어 오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조명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유월절의 명칭들

성서에 나타나 있는 유월절에 대한 명칭들은 그 나름대로 유월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성경에 등장하는 명칭들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월절: 우리말 성경에서 ‘유월절’이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명칭은 가장 대표적인 명칭이다. 히브리어로는 ‘하그 하페사흐’(hag ha-pesah)이며 영어로는 ‘the Feast of the Passover’라고 번역한다. 이 명칭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인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히브리어 ‘파사흐’(Pasah)는 ‘위로 넘어 간다’ ‘뛰어 넘다’ 등을 의미하는 동사 ‘파사흐’(Pasah)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이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그들을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후에 이르러 ‘페사흐’는 유월절 절기를 위하여 잡는 양이나 유월절에 드러

지는 제물 전체를 가리키는 전문용어(technical term)가 되었고(출 12:11, 27), 더 나아가 유월절 명절 자체를 지칭하는 명칭이 되기도 하였다(출 1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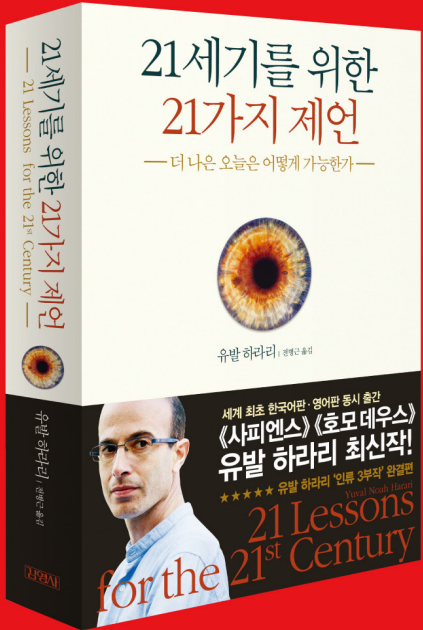
(2) 무교절: 우리말 성경에서 ‘무교절’로 번역하고 있는 이 명칭은 히브리어로 ‘하그 하마초트’(hag ha-Mazzot)이며, 영어로는 ‘the Feast of the Unleavened Bread’이다. 마초트(Mazzot)는 누룩을 전혀 넣지 않고 구운 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마차’(Mazza)의 복수형이다. 유월절 명절 동안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룩을 넣은 빵이나 과자를 먹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 부르게 되었다.

레위기 23장에 근거하여 이 절기를 엄격히 구분하면, 절기의 첫날인 14일 하루는 유월절이고, 나머지 7일간은 무교절이다. 이것은 두 개의 각기 다른 절기가 어

느 계기를 통하여 하나로 결합되었음을 시사해 주기도 하지만, 이 두 명칭은 큰 차이 없이 혼용되어 왔다. 신약성서에서도 이 두 가지 명칭은 엄격한 구분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막 4:1 눅 22:7).

(3) 아빍월: 신명기 16장에 의하여 유월절은 아빍월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아빍월은 유대력의 첫 달로서 지금의 3-4 월경에 해당된다. 어원적으로 ‘곡식의 어린 이삭’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빍’은 그런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인 ‘봄’의 명칭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은 이것과 관련하여 유월절을 ‘하그 헤아비브’(hag he-Abib) 즉 ‘the Feast of the spring’라고 부른다. 이렇게 유월절을 아빍월과 관련시켜 부르게 된 것은, 유월절의 시기가 봄 곧 이삭이 나오는 계절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일 년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계속)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사피엔스〉〈호모 데우스〉에 이은 ‘인류 3부작’ 완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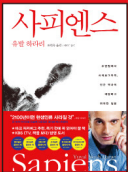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세계 최초 한국어판·영어판 동시출간!  
일, 자유, 테러, 탈진실, 기후변화, 민족주의...  
기रो에 선 21세기 사피엔스가 기다려온 책,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유발 하라리 | 전병근 옮김 | 572쪽 | 22,000원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한 가장 위대한 책

사피엔스

117쇄

유발 하라리 | 조한욱 옮김 | 이태수 감수 | 636쪽 | 22,000원



신이 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한 가장 대담한 책

호모 데우스

47쇄

유발 하라리 | 김영주 옮김 | 630쪽 | 22,000원



유발 하라리

Yuval Noah Harari

김영사

TEL 031)955-3100

www.gimyoung.com